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00 6 00 코모닝! 채널A 1~2부	00 KBS 뉴스광장	00 코모닝 대한민국 1~2부	00 앙코르 MBC 스페셜 <순천만 도둑계>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00 7 00 박종준의 페도난마(재)	50 인간극장	00 KBS 아침 뉴스타임	00 MBC 뉴스투데이 35 특집다큐멘터리 <100대민족문화상징>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00 8 50 이슈 토크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40 여유만만	3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00 9 50 관촬카메라 24시간(재)	00 KBS광주 70년 특별 생방송 <희망 2012, 사랑해 무등산>	50 지구촌 뉴스	00 대장경 천년 특별기획 <구신(재)>	30 SBS뉴스
00 10 00 채널 A 뉴스 20 어린이 특선다큐 <우리집은 동물농장>	00 KBS 뉴스 12	10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00 MBC 뉴스 10 자유통상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스페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11 50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00 오작고 형제들(재)	00 KBS 뉴스 12	00 공감 특별한 세상 스페셜	00 SBS 12뉴스 30 건강클리닉
00 12 00 뉴스쇼 A타임 1~2부	00 KBS 뉴스 10 KBS광주 70년 특별 생방송 <희망 2012, 사랑해 무등산>	00 불후의 명곡 2	00 고향을 부탁해(재) 55 키즈어디엔처 여기가 어디야? 베스트	00 SBS 뉴스 10 세상발전 유레카
00 1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0 KBS 뉴스 10	30 KBS 뉴스타임 35 우당탕탕 캐릭터 극장(재)	45 집, 그곳에 살다	10 영상포럼 한국 100경
00 2 00 그 여자 그 남자(재)	00 KBS 오늘과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소화제 2	05 달의 신나는 우주 여행 30 TV 유치원	00 뽀뽀 아이즈 30 안성 토토비	00 주블스 30 푸르기 탐구생활
00 3 00 박종준의 페도난마	00 KBS 뉴스 5 20 남도지오그래피	00 파워마크 30 인간극장 프라임	00 공감 특별한 세상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다류로 만나는 세계
00 4 00 어린이 특선다큐 <우리집은 동물농장> 30 개그시대(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보 1~2부	00 손미나의 갈 데까지 가보자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투데이
00 5 40 월화 미니시리즈 <K-POP 최강 서바이벌(재)>	00 KBS 뉴스 7 30 스카우트	45 일일시트콤 <선녀가 필요해>	45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20 일일드라마 <내말 꽃님이>
00 6 50 수상한 상견례(재)	25 일일연속극 <딩신뿐이야>	20 스타 인생극장 50 비타민	15 일일연속극 <오늘만 같아라>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스포츠 뉴스 50 한밤의 TV연예
00 7 00 뉴스A	00 환경스페셜 50 아름다운 사람들	00 KBS 뉴스 9	55 수목 드라마 <적도의 남자>	55 드라마 스페셜 <육탐방 황세자>
00 8 00 글로벌한식토크 쇼킹	00 KBS 특별기획 <김정일>	15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15 짝
00 9 10 박종준의 페도난마(재)	30 KBS 뉴스 35 클래식 오디세이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세상의 모든 다큐	35 자원봉사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25 나이트라인

이준기, 日 팬미팅 '커밍 백'으로 팬들과 재회

히트곡 '사랑을 몰라' 등 다양한 라이브 무대로 팬들 사랑 보답

"이준기 팬이 바로 세계 최고입니다." 지난달 제대한 한류스타 이준기가 지난 18일 요코하마의 퍼시픽 요코하마 국립대홀에서 팬미팅 '커밍 백'을 두 차례 열고 일본 팬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이준기는 유년기에서 제대 모습까지 추억의 앨범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서 플랜트의 연주에 맞춰 록버전으로 새롭게 편곡한 '한마디만'으로 힘차게 귀환을 알렸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 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뒤 "신인 때 꿈과 희망을 키우던 요코하마에서 군 입대 직전 팬미팅까지 가졌는데, 뜻깊은 곳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군생활과 관련해서는 "군대를 당당하게 갔다 올 수 있었던 힘을 여러분한테 받

았다"며 "혼자 뭐든지 다해야 했는데, 밖에서 얼마나 많은 분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히트곡 '파이어러 아이즈(Fiery Eyes)', '사랑을 몰라', '제이 스타일(J Style)' 등 다양한 색깔의 라이브 무대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이준기는 지난 16일 새 싱글 '듀서(DEUCER)'가 발매 당일 오리콘 일간차트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다 여러분 덕분이다. 오리콘 1위의 힘을 여러분이 줬다"고 강조한 뒤 음반 수록곡 '보 어게인(Born Again)'과 '투게더(Together)'를 열창,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날 공연에는 한국과 중국 등 해외 원정팬도 대거 참석해 시종 열띤 응원을 보였다.



이준기는 하트 모양의 종이눈이 흘날리는 가운데 약 2시간 반의 팬미팅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준기 팬이 바로 세계 최고"라고 외쳤다. /연합뉴스

수상한 기숙사 의무식제도

MBC '불만제로' 오늘 오후 6시 50분

MBC 소비자 프로그램 '불만제로'는 21일 오후 6시50분 '초특급 급감사수 프로젝트 그 후!', 수상한 기숙사 의무식제도' 편을 방송한다. 이번 편에서는 2009년과 2011년 '불만제

로' 방송 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급순도 및 관련 표시 규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제작진은 '급 최고가 매입'을 써 붙이고 급을 사들이는 '이동식 급 매입소'들을 찾아가

격과 무게를 속이는 현장을 고발한다. '불만제로'는 이와 더불어 대학교 기숙사 의무식 제도도 취재했다. 의무식 제도는 기숙사비와 함께 한 학기 밥값을 미리 내는 제도로 식비를 내지 않으면 입사할 수 없을뿐더러 일단 낸 후에는 환불도 불가능하다. 제작진은 식당 운영권을 민간에 맡기는 조건으로 민자사업 방식으로 기숙사를 지어 계약 내용상 어쩔 수 없다는 학교 관계자의 말을 전하는 한편 프랑스·일본 등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1일(음 2월 29일 辛巳)

子	36년생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라. 48년생 인과 관계를 살펴볼 일이다. 60년생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72년생 다투기 이전에 억지사지하라. 84년생 성급한 결정은 헛수고를 하게 한다. 행운의 숫자 : 70, 60
丑	37년생 문제점이 보이거든 바로 잡아라. 49년생 더불어 살아가자. 61년생 일말의 가능성이 보인다. 73년생 소신껏 행동하면 뒷사람의 인정을 받으리라. 85년생 안에서 화목해야 밖에서도 순조로우리라. 행운의 숫자 : 80, 88
寅	38년생 남의 떡이 커보이더라도 욕심을 버려라. 50년생 무관심 하는 대다수 사람으로부터 희의를 느낄 수 있다. 62년생 얼굴에 함박꽃이 피어나겠다. 74년생 부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체를 파악하라. 행운의 숫자 : 34, 74
卯	39년생 서둘러야 목표에 도달한다. 51년생 사소한 잘못이라면 큰 안목으로써 관대하게 대해 주는 것이 좋다. 63년생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자. 75년생 행사에 참여하면 부가적 이익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16, 71
辰	40년생 어려운 가운데에 좋은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52년생 가는 것에 비해서 돌아오리라. 64년생 구성원간의 화목이 중요하다. 76년생 고생하는 만큼의 보람이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2, 81
巳	41년생 말뚝을 막아 놓고 말하면 자신도 뉘이느니라. 53년생 급하더라도 모두 알아보고 써야겠다. 65년생 모든 면이 목적에 정확히 부합해야 하느니라. 77년생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예의 주시하라. 행운의 숫자 : 83, 02

午	42년생 옛 것에서 강한 행운이 연달아 따를 수다. 54년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 66년생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이보 후퇴를 해도 좋다. 78년생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성숙해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2, 93
未	43년생 양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리라. 55년생 분수에 넘치는 허세를 부리다가는 힘들어지겠다. 67년생 사소한 과실을 가볍게 넘기자. 79년생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생각대로 행하라. 행운의 숫자 : 45, 79
申	44년생 죽마고우와 추억의 옛것을 나눌 수 있다. 56년생 형편대로 성의를 표시하면 무방하도록. 68년생 진퇴양난이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80년생 상대를 존중하고 의도하는 바에 관심을 갖자. 행운의 숫자 : 07, 89
酉	45년생 선행과 자신이 큰 행운을 부르리라. 57년생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이해야겠다. 69년생 하루하루가 너무 짧다. 81년생 보여주려고만 하지 말고 아름다운 진정성을 지녀라. 행운의 숫자 : 13, 64
戌	46년생 청산으로 사기를 진작시키자. 58년생 소모적인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70년생 예상보다 큰 규모의 지출이 있을 수도 있다. 82년생 사치벽은 하루빨리 떨쳐 버려야 할 악습이리라. 행운의 숫자 : 90, 39
亥	47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성과는 미미. 59년생 가득 찬 것을 비웠을 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법. 71년생 내 부족 비빌 사항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83년생 실수가 없으면 신운을 잃게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65, 8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EBS		EBS	
06:00 헬스 투데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35 척척폭죽 처럼	20:25 지식채널e
06:30 성공인생 후반전	(정신우의 척척 만들수 있는 일주일 식단)	16:00 똥똥똥 유치원 1~3(재)	20:30 EBS 뉴스
07:00 제로니모의 모험	10:30 60분 - 부모	16:30 숲 속 대장 물루(재)	20:50 세계대미기행 <시간이 증증하는 똥 배트맨 3부>
07:30 꼬마 평민 귀공	(내 아이 공부두뇌 만들기 4편)	16:45 카툰극장 실험실(재)	21:30 한국기행
07:45 뽀뽀뽀 뽀로로	12:00 EBS 정오 뉴스	17:00 방구대장 뽀뽀(재)	21:50 특집 학교에서 길을 찾다 <2부 북으로 그리는 희망>
08:00 똥똥똥 유치원 1~3	12:10 연중기획-폭력없는 학교	17:10 디보와 노래(재)	22:40 극한직업 <우주 탐사의 참병, 허블우주망원경>
08:30 꼬마버스 타요	13:00 세계대미기행 <남만 설국 스위스 3부>	17:15 꼬마버스 타요(재)	23:10 다큐10+
08:45 카툰극장 실험실	13:40 EBS다큐프라임 <한국 음식을 말하다 3부>	17:30 신나는 오정학교(재)	24:00 지식채널e
09:00 방구대장 뽀뽀	14:30 함께하는 한국어	17:45 뽀뽀뽀 뽀로로(재)	24:05 공부의 왕도 스페셜 <교과서 10회독의 비밀-김태환>
09:10 디보와 노래(재)	15:00 배움너머	18:00 생방송 특목 보너스 1~4	24:35 스페이스 공감
09:15 코코몽2	15:10 원더펫	18:50 외골을 친구들	
09:30 신나는 오정학교		19:00 오스카의 오아시스	
09:40 숲 속 대장 물루		19:10 제로니모의 모험	
10:00 남편이 달라졌어요		19:35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국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That's a pain in the neck 그러게요, 참 힘드네요	四知(사지) 넉사, 알지
A : The buses have been running late this month. B : But they're always slow in the morning. A : If I don't get up early, then I'm late for work. B : That's a pain in the neck.	사지(四知)는 두 사람간의 사이일지라도 하늘과 땅, 나와 상대방이 다 알고 있다는 뜻으로, 비밀은 언젠가는 반드시 탄로 나게 마련임을 이르는 말이다. 후한(後漢) 때, 양진(楊震)이란 관리가 있었다. 그는 행동이 바르고 어질어질 사람들이 그를 '관서(關書)의 공자'라고 불렀다. 그가 동래(東萊)의 태수로 부임했을 때, 관내 부사 한 사람이 은밀히 찾아왔다. 부사가 황금 10근을 주었으나 양진은 이를 거절하였다. "지금 은 한밤중이므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양진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알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찌서 그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는가?"하며 나무랐다.
* a pain in the neck = 정말 곤란한 일, 상대하기 매우 힘든 사람 * run : 운행하다 * late for work = 지각출근하는	[출전] <후한서(後漢書)> 양진전(楊震傳)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니하오 쑹구위
放长线 钓大鱼 大魚를 잡으려면
'긴 줄(長線)을 놓아(放) 큰 고기(大魚)를 낚을(釣) 수 있다 - fāngchángxiàn diào dà yú'라는 말로 일을 하면서 멀리 내다보는 계획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당장에 수확을 얻지 못하더라도 훗날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야 눈앞의 작은 이익도 그냥 필요비용으로 충당하겠는데, 사람이란 게 눈앞의 이익이 크게 보이고 당장의 배고픔이 급한 법이니 덤덤 몰다보면 내내 그 모양 그 꼴로 살게 되나 봅니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눈은 많은 공부와 경험에서 이뤄지겠지요. 放长线钓大鱼을 線이放得長, 魚이釣得大 xiàn fāng de cháng, yú diào de dà 라고도 말합니다.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오하오우 니혼고
調(しら)べてみましょう。 조사해 봅시다
A : 変(へん)だな。鍵を掛けて出(で)たはずですが、開いていますよ。 B : 泥棒(どろぼう)が入(はい)ったかも知(し)りませんが、調(しら)べてみましょう。 A : しかし、無(な)くなったものは何(なに)にもありませんよ。 B : では、鍵を掛けるのを忘れて出(で)たかも知れません。 A : 이상하군. 문을 잠그고 나갔을 터인데 열려있어요. B : 도둑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사해 봅시다. A : 하지만 없던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B : 그럼 열쇠를 채우는 것을 잊고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단어정리] 鍵(かぎ)을掛ける 열쇠를 채우다 開(あ)いている 열려 있다 泥棒(どろぼう)が入(はい)る 도둑이 들다 調(しら)べてみる 조사해 보다 無(な)くなる 없어지다 忘(わす)れる 잊다
<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